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7. 7. Vol 247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초여름의 농심

이맘때면 초록은 동색(同色)으로
산과 들 하나되어 녹색물결 넘치는데
메마른 들녘에 주저앉은 농심
빼꾸기 소리마저 처량하게 들려오네.

목마름에 지쳐 늘어진 논밭 작물
목례하는 모습 쳐다보기 애처롭고
온 동네 저수지 속살 드러내며
거북이 등 모양하고 신음을 한다.

푸른 싹 튀우던 풍년의 꿈 어디로 가고
내일은 비 오려나 시름 젖은 농심

무정한 하늘이여!
주옥같은 단비 내려 들녘 가득 적시고
단풍과 황금들녘 하나 된 올가을에
청풍명월 이 땅에서 풍년가 들어보세.



임 성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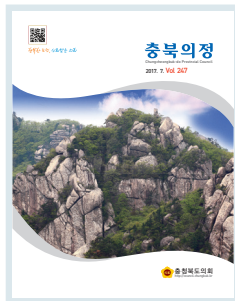
- 행정학박사
- 충북 진천 출생
- 「문예한국」 시부문, 「한국문인」 수필부문 신인상 수상
- 산수문학회 회장(현)
-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세상 감사(현)
-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초빙교수(현)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7. 7. Vol 247

Contents



속리산 바위능선

백두대간이 속리산에서 서북 방향으로 가지를 친 지능선에 솟아 있는 봉우리로 서 문장대와 상학봉 사이에 수려한 암굴미를 자랑하는 산으로, 속리산을 모신(母山)으로 하는 산답게 기암괴석이 많으며, 절골을 비롯한 깨끗한 계곡을 남북으로 품고 있다.

사진제공 : 보은군청

- 04 | 제356회 정례회 주요내용
- 06 | 정책 토론회 개최
- 10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 12 | 러시아 연해주의회와 신규교류 추진
- 13 | 최전방부대 위문·안보체험
- 14 | 각 위원회 활동상황
- 21 | 주요 처리의안
- 24 | 대집행부질문
- 25 | 5분 자유발언
- 26 | 의정활동 이모저모
- 28 | 세무상식·건강상식
- 30 | 의원논단

-
- 발 행 일 2017년 7월
 - 발 행 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양희
 - 발 행 처 충청북도의회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043) 220-5123 ● F A 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buk.kr>



충청북도의회는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 제356회 정례회를 열어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356회 정례회 주요내용

2016년도 결산 승인·충북도 제1회 추경 의결

교육·환경·인권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현안해결에 앞장

충청북도의회(의장 김양희)는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열린 제356회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충주댐 주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와 ‘충청북도 느린학습자(학습부진아) 교육지원 정책 토론회’,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충청북도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러시아 연해주의회와 우호협력관계 구축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교류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의회는 6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충청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했다.

이어 김학철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사업 중단 선언에 대한 사유를 묻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제356회 정례회 주요 처리의안

- ❖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
- ❖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 요구안
- ❖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 ❖ 2016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 ❖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또 박우양 의원과 이양섭 의원이 ‘일라이트 산업 육성’과 ‘가뭄 해결을 위한 도차원의 노력 필요’ 등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6월 9일부터 18일까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 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또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안건과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6월 22일 실시한 2차 본회의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양희 의장은 “도민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피고, 올바른 예산집행 방향을 제시해 건전한 재정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 및 충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곤충산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필요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30일 옥천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북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황규철)는 5월 30일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북도내 곤충 관련 전문가와 곤충 관련 농가 및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도의 곤충산업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 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 됐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충북연구원 우장명 수석연구위원의 '곤충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충청북도의 과제'란 주제발표에 이어, 충북대학교 조수원 교수, 전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이기열 국장, 영동곤충산업영농법인 여운하 대표, (주)충북곤충자원연구소 박덕주 고문, (주)글로벌푸드 박남규 대표, 충청북도 김창섭 축산과장 등 6명의 패널이 열린 토론을 펼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청북도 안호 축산정책팀장은 '충청북도 곤충산업 정책 및 육성계획 발표'를 통해 "충북 내 곤충산업이 미래 블루오션 사업으로 매년 곤충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제2차 곤충산업 5개년 계획으로

130억 원 투자로 도내 곤충농가 생산·유통·소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장명 수석연구원은 충북곤충산업 SWOT분석을 통해 △기초과학연구분야 R&D 및 사업화 기반 풍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분야 산업특화 우수 △전국X축 교통망의 중심에 위치 등의 강점과, △중장기 계획과 제도적 기반의 미흡 △곤충산업 연계 네트워크 부족 등의 약점을 설명하고 강점과 약점의

분석을 통해 충북 곤충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충북 곤충산업 육성 추진 전략으로 △환경정화, 사료, 바이오산업용 등 곤충의 가치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통한 인식 전환 △국내 곤충자원 발굴, 확보, 정보화 등의 인프라 구축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 발전 수단으로 곤충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한 곤충산업 활성화 △곤충 사용 대규모 수요처 확보를 위한 정부노력의 필요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곤충사육에 대한 노하우 공유의 중요성 △대량의 곤충함유 식품의 다양한 개발로 농가 수익 안정화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객석 참여자의 제안으로는 곤충산업에 대한 협의체 구성, 체계적인 연구 및 기술 지원 확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꾸준한 곤충산업 행사 추진을 위한 지원 등의 요청이 있었다.

황규철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 개정 등 정책·제도적 측면을 보완·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의견 개진



정책복지위원회는 5월 22일 진천군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중부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광희)에서 주최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중부권(진천, 음성, 괴산, 증평) 정책 토론회가 5월 22일 진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3일 열린 제1차 토론회에서 지역별로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 토론회에 이어 실시된 것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 이양섭 의원과 중부 4군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 장애인,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양섭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박종섭 충북대학교 교수, 한명수 진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원하 증평군생활이동지원센터장, 송석호 진천군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김재수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제정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추진결과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실태조사 매뉴얼 작성 의무화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에 장애인 참여규정 의무화 △장애인 실태조사 항목 조항 추가 △장애인 인권보장 기

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 동일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권역별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양섭 의원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과 평등권 보장”이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줄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조례를 내실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추가로 청취한 뒤 최종안을 작성해 올 하반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충주댐 건설로 피해입은 주민들의 실질적 지원 필요



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20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충주댐 주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임순묵)는 6월 20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충주댐 주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댐 건설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지한 담론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도의원, 전문가, 충청북도·충주시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이종배 국회의원,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이종갑 충주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용진 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진수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장, 김주철 충북일보 본부장, 이재경 환경실천연합 충주지회장, 오진섭 충주부시장, 민광기 충청북도 바이오환경국장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질의·응답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민광기 국장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취수장 이설 요구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의 지역현안 문제와 물관리 정책 변화에 대해 "충청북도의 수질·환경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진섭 부시장은 수몰로 인한 댐 주변지역의 피해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출연금의 비율 상향 조정과 댐별 확보 재원의 지역 환원 등의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충주댐관리단장은 댐 주변 지원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사업들의 추

진 상 문제점과 향후계획 등을 사업별로 설명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경 교수는 "충주댐 주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시도 등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이 정책으로 구현돼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3개 권역 협의체 의견 수렴을 기초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철 본부장은 충주댐 수몰지역이 지역발전에 끼친 악영향 등에 대해 언급하고 "충주댐 건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영향을 다방면으로 조사해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확대, 지원금 배분 기준의 합리화 등의 대책을 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정민 충주지회장은 "도와 충주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머리를 맞대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토론회에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소관 실국 및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습부진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 강조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학습부진아 교육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영수)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충청북도 학습부진아 교육지원 정책 토론회'가 6월 2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교사,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충청북도 학습부진아 학습지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청주교육대학교 이규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도의회 정영수 교육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종훈 좋은교사운동 배움 찬찬이 연구회 대표와 이은주 청주교대 초등교육과 교수의 주제발표(학습부진 학생 지원 정책 필요성, 충청북도 학습부진학생 지원 조례)와 함께 신혜경 충청북도교육청 유치초등교육과 장학사, 노한나 군남초등학교 교사, 한정인 충북대학교부설중학교 학부모 회장, 이숙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1주제발표를 한 김종훈 대표는 △학습부진아의 개념정의와 정확한 실태조사 △신뢰성 있고 표준화된 학습부진아 판별도구 개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지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제2주제발

표를 한 이은주 교수는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회 차원의 조례제정 필요성 △도교육청의 적극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들의 토론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개입시기를 현행 초등 3학년에서 1, 2학년으로 앞당겨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습부진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교재와 교육방법 필요성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수립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한 가정 차원의 노력 필요성 △실제 학교현장의 교육적 지원에서 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담보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도출됐다.

이숙에 의원은 “학습부진아의 정확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진단방법 개선,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방식 개선, 일선 학교현장 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 지자체와의 협업 등 많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좋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신혜경 장학사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학습부진아를 위해 각급 학교의 학습부진아 진단 및 맞춤형 교육지원, 두드림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한나 교사는 “일선 학교에서 학습부진아 지도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내려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임 학부모는 “학생편애, 열정부족, 학습방법 차이 등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수를 통해 동등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의회, 강도 높은 결산검사 실시

충북도 20건, 도교육청 12건 지적·개선 요구

건전재정 운영과 올바른 집행방향 등 제시



충북도의회는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에서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김양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6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3월 29일부터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4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박한범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윤홍창·이숙애 의원과 김창섭·최재혁 공인회계사, 장종훈 세무사, 강성태·김대옥·김왕년 전직공무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9명을 선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검사위원 중 도의원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으로 활동하는 의원들로 구성돼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현미경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회계법 제정·시행으로 검사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이 의무화 되고,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가 결산서 작성대상에 포함됐으며,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검사위원 이름과 의견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호평을 듣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결산검사는 기존의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보다 세밀하고 강도 높은 검사였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많은 지적·개선사항을 도출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과 올바른 예산집행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문제점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은 다양한 지적과 대안을 도출해냈다.

우선 충청북도의 자금 없는 이월예산 관리의 부적정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 발생을 지적하고,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운영에 대한 예산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또 성과보고서 작성의 개선과 재난성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권고하는 등 지적·개선사항으로 20건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지적사항은 지난년도 수입세입 누락, 의료급여기금 과오납반환 부적정, 민간인 국외여비 과다계상, 계속

【 충청북도 : 20건 (지적 19건, 개선 1건) 】

제 목	비 고
지난연도 수입세입 누락	지적
의료급여기금 과오납반환 부적정	지적
민간인 국외여비 과다계상	지적
계속비 사업예산 미반영	지적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과다발생	지적
민간보조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미흡	지적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지적
환경체험교육 지원사업 강사평가 미흡	지적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지적
일반회계 예산운용(순세계영여금 등) 개선	지적
성인지예산 책정에 치밀한 계획수립 필요	지적
성과보고서 작성 개선	지적
자금없는 이월예산 관리 부적정	지적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	지적
투자진흥기금 운용 미흡	지적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일부 미가입	지적
도로점용료 등 미수납채권 적정관리	지적
기금 및 특별회계 자금 운용 미비	지적
재난성 가족전염병 긴급 방역비 본예산 편성권고	지적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시스템 개선	개선

비 사업예산 미반영,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과다발생,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투자진흥기금 운용 미흡 등이며, 개선사항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시스템 개선이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운용 문제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소홀함을 지적하고,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향상하는 방안 강구를 지적하는 등 12건에 대해 개선·권고를 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예비비 운용 철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기숙형중학교 사업 추진 지연 등이며, 권고사항은 일상경비 자금의 교부 및 지출에 대한 내역 일계표 개선, 국립학교 재정지원 지양 등이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은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불용예산 발생사유, 기금 및 채권·채무 관리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결산 감사위원들은 또 지난 4월 3일 3개교 통합 공립 기숙형으로 신설된 단양 소백산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운영실태를 점검하고, 13일에는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현장과 4월 12일 준공된 화장품 임상연구 지원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충주 종합운동장을

【 충청북도교육청 : 12건 (개선 10건, 권고 2건) 】

제 목	비 고
예비비 운용 철저	개선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개선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 소홀	개선
성과보고서 작성 개선	개선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향상방안 강구	개선
사립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 철저	개선
미수채권관리 소홀	개선
영어금의 지방채상환 시스템 개선	개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원관리 소홀	개선
기숙형중학교 사업 추진 지연	개선
일상경비 자금의 교부 및 지출에 대한 내역 일계표 개선	권고
국립학교 재정지원 지양	권고

【 우수사례 : 4건 】

제 목	비 고
예금이자 수익을 통한 세입증대	우수
물품 통합계약(공동구매)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	우수
미불용지 보상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	우수
입목적 관리 철저를 통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우수

건설현장으로 이동해 올해 최대 행사인 2017년 전국제천 개최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바쁜 감사일정 속에서도 주요사업장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박한범 대표위원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와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결산검사를 진행했다”며 “도출된 감사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결산감사에 따른 감사위원의 의견서는 지난 4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됐으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해 최종 심사·승인을 받았다.



충북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감사위원들이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의회, 러시아 연해주의회와 신규교류 추진

양 의회간 우호협력관계 구축 통해 상호발전 도모



충청북도의회는 5월 27일부터 5일간 러시아 연해주의회를 공식 방문해 충청북도의회와 연해주의회 간 행정·민간·기업분야 등에 대한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했다.

충청북도의회는 김양희 의장을 단장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연해주의회를 공식 방문해 충청북도의회와 러시아 연해주의회 간 상호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관계를 맺었다.

연해주의회와의 이번 교류협력 추진은 지난 4월 청주 국제공항에 러시아(블라디보스크, 하바로프스크) 정기노선이 신규 취항한 것을 계기로, 상당부분 중국에 편중됐던 국제 교류지역을 한층 다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 대표단은 5월 29일 연해주의회 볼릭 알렉산드르 의장을 만나 양 지역의 우호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관심·지원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충청북도의회와 연해주의회 간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김양희 의장은 연해주의회 볼릭 알렉산드르 의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적인 경제여건은 어렵지만 역사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친밀한 충청북도와 연해주가 의회 간 우호협력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성과들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21세기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발전중심축으로 양 지역이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

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교류 협력을 투자·관광 설명회 개최 등 행정, 민간, 기업분야까지 확대시키고, 상생·협력적인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 양 의회가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도의회 대표단은 5월 29일 연해주의회를 방문하기 전 러시아 주블라디보스크 이석배 총영사를 만나 충청북도와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전역과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충북의 투자·관광 여건 및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안내하며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등에게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30일에는 하바로프스크에서 활동하는 극동시베리아 고려인연합회장을 비롯한 고려인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충북의 국제행사와 도정에 대한 대외적 홍보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충청북도의회는 러시아 연해주의회와의 우호협력 합의를 계기로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우호교류를 확대하며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최전방부대 군장병 위문 및 안보·병영체험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한 철저한 안보의식 확립



충청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6월 12일부터 이틀간 최전방에 위치한 백두산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위문하고 안보의식을 새롭게 다졌다.

충청북도의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6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 최전방에 위치한 백두산부대를 방문하여 군 장병을 위문하고 안보·병영체험을 실시했다.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안보체험에는 김양희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첫날인 12일 방문단은 포병 부대를 찾아 군 장병을 위

문하고 전투복을 착용한 뒤 장갑차 탑승하며 각종 포병부대 장비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어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내무반과 취사장 등의 병영시설과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보급품들을 살펴본 후 군부대에서 필요한 예취기와 천막 등 위문 물품을 사전에 준비해 전달하기도 했다.

13일에는 1990년 3월에 발견된 제4땅굴을 견학하며 남·북 분단의 현실을 체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최근 잇따른 북한

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정세 등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양희 의장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한 철저한 안보의식 확립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한 과제가 돼야 한다”며 “국가가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체육행사

증평 좌구산 등반하며 소통과 화합 시간 가져

충북도의회는 20일 증평 좌구산 일원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는 이날 증평 좌구산을 등반하면서 평소 못다 나눴던 대화를 나누며 화목한 한 때를 함께했다.

김양희 의장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온 의원 분들과 의정활동을 보좌해 온 사무처 직원들에게 늘 감사하다”며 “나날이 발전하는 증평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가서 앞으로 도의회가 보다 활발히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충북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그 역량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5월 20일 증평군에 위치한 좌구산에서 체육행사를 갖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56회 정례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3건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병운)는 제356회 정례회 첫 날인 지난 6월 8일 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6월 8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은 변동 없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9억8326만7000원 보다 4억 6043만원이 증액된 104억4369만7000원으로 편성했다.

주요사업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 의회버스 구입비 1억2400만원, 의정활동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2432만6000원, 의정홍보 영상편집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공로연수자에 대한 보수 및 직급보조비 2억 6629만2000원, 무기계약직 급여 인상분 941만2000원 등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지난 19일 실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주요 결산내용은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의 세입 정

수결정액은 17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및 불용품매각대 등 1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공용후대전화요금 이중 지출에 따른 반납액 600만원이다.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예산현액 4조8804억5600만원의 0.2%인 100억2200만원으로, 이중 95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의 이월액과 4억1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9%인 2500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94.1%인 3억9000만원이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는 없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제10대 의회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 중 18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다.

이날 심사에서 박병진 의원은 “정확하고 면밀한 결산검사를 위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결산검사 기간과 감사위원수를 늘리거나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11일간 개최해 상반기 도정 및 교육시책 추진 상황 보고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56회 정례회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등 제·개정



위원장
이광희 의원



부위원장
이양섭 의원



김영주 의원



박우양 의원



박종규 의원



윤은희 의원



정책복지위원회는 6월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광희)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세입재원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반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하고, 세출예산의 일부사업에 대해 예산의 정확한 편성과 투명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서는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윤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6월 14일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양섭 의원은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지원 사업’의 사업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업 1개 업체당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우양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수행기관 선정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규 의원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사업’에 산증액 사유를 질의하고 광역개념의 업무 추진과 센터 명칭을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중부권 잡월드(Job World) 건립 타당성 용역’ 추진과 관련해 현 정부 대선공약인 만큼 치밀한 계획 하에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사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은희 의원은 시·군과의 매칭을 통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를 타 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같은 수준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56회 정례회

충북도 지방공무원 자녀돌봄휴가 대상학교 확대



위원장
김학철 의원



부위원장
연철흠 의원



박봉순 의원



박한범 의원



이언구 의원



최병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15일 위원회를 열어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학철)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를 개최해 최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AI 및 구제역 피해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최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녀돌봄휴가 대상 학교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집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됨으로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청주전시관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과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주북대119안전센터 증축의 건’은 건축물의 노후가 심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출동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증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했다.

행정문화위는 또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공보관에 대해 2017 전국대전 홍보와 관련해 프레스센터의 실사용자 관점에서 세심한 준비를 요청하고,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글로벌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지원과 사업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는 1회 추경에 신규로 요청한 저소득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이 1인당 2백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지원금이 소액이라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감사관에 대해 작년 도내 언론사의 행사진행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결산 및 추경안에 있어 적절하게 집행하고 정확하게 편성하려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정확한 근거 제시 등 곳곳에 미비한 사항이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향후 정확한 추계반영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56회 정례회

가뭄극복·AI확산 선제적 방지 총력 요구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황규철)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각각 심사·의결하고, 비회기 중인 5월 30일 ‘충청북도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먼저 6월 9일 실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최대 현안인 가뭄과 관련하여 이상기온으로 농업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반드시 농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대비해 농업생산의 피해가 적도록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어려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농업의 6차산업화임을 강조하며, 전통주 홍보 및 마케팅 등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 휴지기제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AI 확산은 많은 사육농가들에게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만큼 발 빠른 대응과 조속한 종식을 주문하고, 가뭄과 관련해 시·군으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

하여 가뭄 해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6월 14일 열린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들은 심사에서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명시이월 사유를 묻고 투자유치에 대한 성급한 실행보다는 협약시 당사자의 점검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고,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실적만 부풀리기 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사업을 적정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투자유치와 홍보 관련 진행사항을 묻고 충북의 투자환경을 중앙지와 지방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것과, 향후 언론매체 및 광고 등을 활용해 투자유치 실적이 보다 제고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위원장
황규철 의원부위원장
이의영 의원

김인수 의원



엄재창 의원



임병운 의원



임희무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9일 위원회를 열어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56회 정례회

댐 주변 지역주민 권리회복에 충실한 역할 촉구



위원장
임순묵 의원



부위원장
이광진 의원



강현삼 의원



김봉희 의원



박병진 의원



장선배 의원



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15일 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임순묵)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7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충주댐 주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불용액 최소화 △대울~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타당성 검토 △시골마을 행복택시 이용 조건 완화 △반복적인 이월예산 최소화 △국지도 건설 관련 지방비 매칭 비율 하향 등에 대하여 개선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는 6월 20일 ‘충주댐 주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순묵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이종배 국회의원 측사와 이언구 충청북도의원, 이종갑 충주시의

회 의장 순으로 인사말을 시작하여 조용진 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제에 대한 토론과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충주댐 주변 지역 주민 삶과 지역 발전에 대한 진지한 담론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소관 실국 및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제1차 위원회 심의 안건인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추가예산 반영 요청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제356회 정례회

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조례 개정 등 8건 심의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영수)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강화를 통해 정보화교육과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정책 실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윤홍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학생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한, 최광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는 인문소양 교육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강화와 인문학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적인 삶에 대한 성찰과 통찰력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 정영수 위원장은 “위해 성분이 초과 검출된 우레탄트랙에 대한 교체사업과 인조잔디 운동장의 마사토 교체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윤홍창 의원, 이숙애 의원, 임현경 의원, 최광옥 의원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성인지 예산사업 성과 미흡과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장
정영수 의원부위원장
이중옥 의원

윤홍창 의원



이숙애 의원



임현경 의원



최광옥 의원



교육위원회는 6월 9일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56회 정례회

충청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지사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제356회 정례회 회기 중 3차례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지사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6월 19일 제1차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2976억 원이 증액된 4조166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0% 증액된 3조723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2% 증액된 4425억 원이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 있게 진행된 심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를 넘겨서야 마무리 되었으며, 계수조정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 전기관 건립비 50억 원 등 총 20개 사업에 63억2351만 7000원을 삭감했다.

6월 20일과 21일 실시한 제2·3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 제출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는 세입결산액 5조294억 원, 세출결산액 4조4643억 원으로 565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발생내역은 이월액 979억 원, 보조금 잔액 16억 원, 순세계잉여금 4655억 원 등이다.

또,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는 세입결산액 2조4867억 원, 세출결산액 2조2093억 원으로 277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발생내역은 이월액 1430억 원, 보조금 잔액 14억 원, 지방채상환액 685억 원, 순세계잉여금 643억 원 등이다.

한편, 박우양 예결위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공로연수·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을 격려 했다.



현 장 중 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56회 정례회 주요처리 의안]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은희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관련사항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
- 센터의 장 임기를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전문성과 기능강화를 통하여 정보화교육과 교육정보화지원 및 역기능 예방정책 실현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업무 관계관'을 신설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 이광희 의원)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도민 등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홍창 의원)

[제안이유]

- 학생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

[주요내용]

-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가능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표발의 : 이양섭 의원)

[제안이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와 구성·기능 중복으로 인해 운영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병윤 의원)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자녀돌봄휴가 대상 학교가 확대되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충돌되는 조항 및 중복되는 일부 조항 삭제

[주요내용]

- 개정 전·후 자녀돌봄휴가 비교
 - 당초 : 유치원, 초등학교 행사시 3일 이내
 - 변경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시 2일 이내(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엄재창 의원)

[제안이유]

- 기존 귀농인을 위한 지원에서 이를 확대하여 귀농어 및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 조례 명칭의 변경(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기존 귀농인이란 표현에서 이를 확대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병윤 의원)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주요내용]

-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최광옥 의원)

[제안이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에 따라 학교 인문소양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인문소양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 학교 인문소양교육 운영
- 인문소양교육 지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18년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한시기구) 설치 및 내수면 분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정원 조정

[주요내용]

- 정원조정 내역
 - 일반직 : 1,438명 → 1,448명 (+10명)
 - ▲4급(+1명), 5급(+1명), 6급(+4명), 7급(+3명), 8급(+1명)
 - 소방직 : 1,686명 → 1,691명 (+5명)
 - ▲소방정(+1명), 소방령이하(+4명)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4항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관련조문을 개정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전출시기 근거 조항 설치로 조례조항 조정
 -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의결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예산안	기정예산액	총 감
4,164,841	3,868,482	296,359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기존 도립대학 특별회계 편성 예산 중 공기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미래관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두었던 한시적 유예규정을 사업 종료에 따라 정비

[주요내용]

- 특별회계 폐지 유예규정 정비
 - 미래관 증축사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대학운영 특별회계를 운영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18년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한시기구)설치 및 내수면 분야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구 조정

[주요내용]

- 한시기구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설치(2018.12.31까지)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 직제조정 : 5급소장 → 4급소장
 - 명칭변경 : 내수면연구소 → 내수면산업연구소
 - 기구조정 : 내수면연구소와 남부출장소 내수면 지원과 통합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요구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주요내용]

- 공익을 해칠 우려
 - 공무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경우 공무원의 투자유치 업무 기피와 투자유치 감소로 이어짐
 - 에코폴리스는 경제자유구역의 32%임에도 전체에 대해 조사 할 경우 정상 추진 구역의 투자기업에까지 반기업 정서 확산 등으로 기업의 투자포기 및 기피 현상이 확산 우려.
- 법령 위반
 -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조사대상이 경제자유영, 경제통상국, 바이오환경국 등 3개 실국과 관련부서로 투자유치 부서 전체로 자치법 제41조제1항(특정사안 조사) 위반
 - 행정사무조사 시 기업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밀유지의무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 제3항, 시행규칙 제21조(영업비밀, 공개 금지)에 위반되는 것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 [주요내용]
- 청주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 증축
-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법률의 근거 없이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
- [주요내용]
- 상위법 법령 및 조문 변경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조례 제4조(시험의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상위법 위임 근거 없음)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오송 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 의회 의결
- [주요내용]
- 출연계획(2016~2017)

(단위 : 백만원)

계	2016년	2017년			비 고
		소 계	당 초	주 경	
13,325	3,000	10,325	6,076	4,249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학교환경정화 → 교육환경보호
- 기존 위임사항 삭제 및 동 법률에 의거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관련 사항 신설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주요내용]
-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 대상지역 등 신설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적용대상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 산정방법 신설
-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도시계획분야 위원의 자격요건 등 신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17학년도 7월 1일자 폐지 대상 학교를 반영
- [주요내용]
- 학교 폐지

명 칭	위 치	폐지일자	폐지사유
대강초등학교장정보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온천로 719-7	2017.7.1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강초등학교로 통합
대강초등학교장정보교장 병설유치원			대강초장정보교장 폐지 (2006.3.1. ~ 휴원중)

시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AI 및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입은 농가의 세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 AI 및 구제역으로 가축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2017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중단선언과 관련하여

김 학 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질문]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8곳, 90개 지구 전체면적 중 충주 에코폴리스는 단 1%도 안 되며, 가용면적으로는 0.2%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국가산단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비 부담금도 300억~5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충주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으며 에코폴리스 때문에 충주시의 대규모 사업 대부분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지역에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현재 어떠십니까?

[답변] 우선 사업 중단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대표, 충주시, 충청북도 3자가 이에 관해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겠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중단한 것입니다.

[질문] 3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공문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주민총회 시 만난 대부분의 주민들은 원안추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대표 단 몇 명과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행정입니다.

[답변] 주민대표와 충주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 결정을 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해당 사업은 5년 만에 사업결정이 반복된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재의요구서를 보면 '투자정보가 공개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라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동안 에코폴리스와 관련해 관보 등에 20여 차례에 걸쳐 고시한 사업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도민과의 신의를 저 버린 '신의성실 원칙 위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재의요구서와 관련하여 특위구성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사항이 공개된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진행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나, 진행시 3300억 원의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 할 것입니다.

[질문] 그것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총사업비 75%는 외부출자로 도와 시의 부담은 700~800억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기반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그리고 지역투자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엄청난 재정부담 초래라고 표현하는 것은無理입니다.

[질문] 지사님께서서는 재정부담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편성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오송전시관 설치와 관련해 도 700억 원, 청주시 7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재정부담 아닙니까?

[답변] 그것은 사업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에코폴리스는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충주 에코폴리스의 생산유발 효과 예상액은 연간 1~2조 원에 달할 것입니다. 지구지정 해제 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임은 물론, 상징성과 부가치창출 등 다양한 투자기회가 상실될 것입니다.

[답변] 생산유발 효과 예상액은 해당지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로 판단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지속 추진했을 경우 도와 시에 주는 손해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 자꾸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도와 시, 그리고 출자사간 합리적으로 재조율하면 정상추진 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과 대책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보상과 대책안은 먼저 충주시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도와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보상과 대책안 마련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즉, 도 직원이 할 일 아닙니까?

충주시는 원안대로 추진 할 것을 원하고 있으며, 대체지구 지정이라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충주시에 떠넘기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가 시작했으면 도가 마무리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라이트 산업 육성 지원 촉구



박 우 양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영동군 일라이트(illite) 산업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일라이트는 일정량의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탁월한 향균 효과를 갖고 있으며 친환경 건축, 친환경 농·축산, 건강·미용, 바이오 세라믹 소재산업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광물입니다.

이와 함께 영동군은 5억만톤 이상의 일라이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 경제성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은 영세한 민간사업체 중심의 운영한계로 원석의

채굴, 건조, 1차 분쇄 수준에 그치고 있어 토양개량제나 건축 마감재 등 단순 가공품을 생산하는 저가치 산업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라이트를 충청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컨텐츠와 융합시키면 영동군을 비롯한 남부3군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현재 도에서 육성하고자 노력 중인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충청도가 일라이트 산업육성의 컨트롤 타워로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거점사업' 국비가 확보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뭄 해결을 위한 도차원의 노력 필요



이 양 섭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진천군을 포함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뭄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합니다.

올해 충북의 상반기 누적 평균 강수량은 평년 270.3mm의 58% 수준인 157.7mm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 대비 51% 수준으로 20.5%포인트나 감소했고, 우리 진천군의 경우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약 55% 이하이며, 저수지의 저수율도 47% 수준으로 충북도내 타 시·군에 비해 가뭄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진천군 내에서도 초평면 화산리 지역은 상습 용수 부족 지역으로 초평저수지의 저수율이 38%까지 감소하는 등 수위 저하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형암반관정 설치 및 초평저수지 준설사업에 충북도가 적극 나서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뭄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등으로 장기화·상시화 되고 있기에 이제는 임시방편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충청북도 차원에서 도내 시·군의 용수수요 및 공급량을 철저히 분석하고 가뭄 취약지역을 파악해 이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용수공급 및 종합관리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김양희 의장, 장선배 부의장, 윤홍창 의원 등은 5월 16일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발대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 이숙애 의원, 이상섭 의원 등은 5월 24일 충북진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서전고등학교 준공식에 참석해 축하·격려했다.



충청북도의회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청주시 사직동 추혼탑에서 실시된 '추념식'에 참석해 헌화·목념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이 6월 5일 청주 양청고등학교 정치토론 동아리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도의회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충청북도의회는 6월 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주 웅담초등학교와 보은 판동초등학교 학생 등 60여명을 초청해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충청북도의회 김양희 의장과 도의원들은 6월 2일 청주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1회 충청북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개최와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충청북도의회 김양희 의장과 도의원들이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천시 일원에서 실시된 '제56회충청북도민체육대회' 개최식에 참석해 성공개최와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과 이숙애·최광옥 의원 등은 5월 26일과 27일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린 충남 천안시를 방문해 진천상산초등학교 핸드볼경기장과 청주여자중학교 농구경기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씨는 더 나아가 듣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하여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한다.

-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세법상차이

- 세율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0%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20%, 200억원초과 22%)로 되어있다.
-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자료제공 : 동청주세무서)





여름철 식중독의 원인과 예방법

■ 여름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여름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날씨와 관계가 깊다.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각종 미생물이 번식하는 데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른 계절이라면 괜찮았을 상황에서도 여름에서는 음식물이 쉽게 부패하고 오염되기 쉽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여행지에서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물을 먹기 때문이기도 하다.

해외여행을 떠나면 본인이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먹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해 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조리하는 환경이 위생적인지, 식재료는 괜찮은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 여행지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신익상(내과전문의) 원장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모두 버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방의 칼이나 도마, 행주 등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주방기구들을 열탕 소독하거나 세척한다. 열탕소독이 힘든 경우에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햇볕에 바짝 말린 후 사용해야 한다.

휴가지에서 길거리 음식이나 위생이 취약한 시설의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자제해야 하며, 자동차 트렁크나 내부는 온도가 높으니 거기에 음식을 보관하지 말고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신선하게 보관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인근 의료기관을 신속히 방문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가급적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식중독 환자의 구토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비닐장갑을 끼고 주변을 가정용 락스 등으로 소독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안전한 음식을 위한 중요한 세가지

1. 완전히 익히기

— 식품, 특히 육류, 가금류, 계란 및 해산물은 완전히 익혀서 섭취한다.

2.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기

—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지 않으며,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섭씨5도 이하의 냉장고에서 보관하며, 냉장고에 음식을 오래 두지 않고, 냉동식품은 실온이 아닌 냉장고에서 해동한다.

3. 안전한 물과 원재료 사용하기

—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과일이나 채소는 잘 씻어서 섭취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는 사용하지 않으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며,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를 선택한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지 발췌〉



박 봉 순 의 원
(행정문화위원회)

분권형 개헌, 이렇게 하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2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지방 자치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 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헌법에 지방 자치를 제대로 명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개헌 을 하겠다고 했으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을 해야 할 때이다. 허울만의 자치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분권 형 개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헌법에 지방분권형 자치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 고 있다. 즉, 지방정부를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지역의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헌법적 제도가 아닌 라 법률적 제도로 보이게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자 치를 법률적 제도가 아닌 헌법적 제도로 명확하게 해 야 한다.

둘째, 헌법에 자치입법권을 확대 보장하는 규정을 두 어야 한다.

헌법은 지방자치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 서’로 제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 라서 자치입법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제정할 수 없도 록 되어 있으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도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율권도 없다.

그리고 자치입법을 통한 형벌제도를 과태료로 한정함 으로서, 자치입법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 입법은 법률적 성격 보다는 선언적 성격의 법률로써 시 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자치입법으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있다.

셋째, 헌법에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명시하여, 지방재 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이다. 따라 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 자치를 하는 반쪽짜리 자치 를 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1992년 70%에서 2016 년 46.6%로 낮아졌다. 스스로 지방을 위해 정책을 펼 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헌법에 지방재정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 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법 른주의에 따라 조세제정권이 없는 지방정부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조세제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27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실질적 인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이제 30년만의 개헌을 맞이하 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 형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

충북 일자리 창출, 지금이 골든타임의 시작



황 규 철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지난 6월 17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선발인원도 적는데다 지원자가 많아 높은 경쟁률을 보여 수험생들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처럼 어려웠다.

충청북도의 경우 9급 행정직은 286명 모집에 5922명이 지원하여 20.7대 1을 기록했고, 충청북도교육청 9급 교육행정직은 159명 모집에 2611명이 지원해 16.4대 1을 기록하는 등 매년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 된지 오래다.

공시생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60세까지의 정년 보장, 연금 등 안정된 노후보장, 과거에 비해 높아진 급여 등 후생복지 혜택 증가 등이 주된 이유지만 이 보다 더 큰 이유는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IMF 이후 기업들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제조업 중심의 생산라인을 미국, 중국, 유럽 등 원가절감을 위한 현지화 전략으로 국내 일자리가 점차 감소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 신설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에 일자리수석을 두고 직접 챙기도록 지시한 것은 그동안 우리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은 실업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이다.

이와 함께, 국회를 찾아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해소와 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추경 예산임을 강조하였다.

청년층 실업률의 경우 지난 4월 기준으로 11.2%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작년 동월 대비 0.3%p 올랐고 이 수치는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 높은 수치로 결국 한국사회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가만 갈수록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발전을 위해 공약한 내용 즉,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벨트 구축,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충주 당노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및 제천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이 조기에 추진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과 충북경제 활성화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충청북도는 이러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의 정상추진과 신규 사업 발굴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일자리 창출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추어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발탁된 충북 출신 인적자원을 총동원하여 필승의 다짐으로 공약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council.chungbuk.kr>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tv.council.chungbuk.kr>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